

사회

여수시 8급 기능직 3년간 횡령액 무려 75억 관련 계좌만 100개 “市 공금은 내돈”

퇴직자 급여 챙기고 상품권 결제대금 착복

여수시청 8급 기능직 공무원의 횡령 규모가 무려 75억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회계과에서 업무를 맡아 최근까지 3년이 채 안 된 기간에 시 공금을 자신의 개인계좌처럼 여겨 매달 2억원 이상씩 빼내간 것이다. 공무원의 공금 횡령 액수로는 역대 최대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감사원 적발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수사를 맡은 검찰은 이 공무원의 독특한 수법, 복잡한 돈거래와 여수시의 허술한 인사·회계·감사 시스템에 놀라고 있다.

2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여수시는 “지난 1992년 수도검침요원(기능조무직)을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한 김모(47)씨의 횡령 규모가 애초 20억원대에서 7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회계과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수 규모는 더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이처럼 횡령액 규모가 증가한 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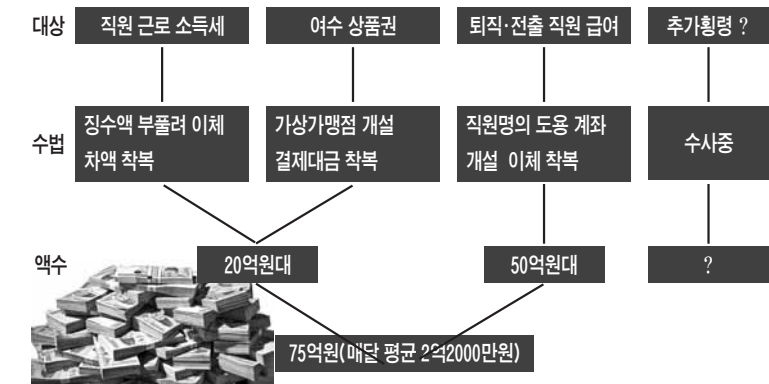
기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김씨의 신종 수법을 검찰이 찾아냈기 때문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김씨는 우선 동료 직원의 급여부터 가로챘다. 동료의 근로소득세 징수액을 부풀려 급여에서 자동이체한 뒤 차액을 자신의 차명계좌에 넣은 것이다.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지난 2000년부터 발행, 의류상점과 대형마트, 주유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수상품권’에도 눈독을 들였다. 가상으로 가맹점을 만들고 거짓으로 상품권 판매대금을 결제한 뒤 이를 또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했다. 이렇게 해서 김씨가 횡령한 금액이 대략 20억원대로 추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여기에 김씨가 이미 퇴직하거나 다른 지자체로 전출된 직원들의 급여까지 장기간 챙긴 사실까지 밝혀냈다. 퇴직·전출 직원의 명단이 시 금고에 있고 있는 농협에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김씨는 퇴직·전출 직원의 명의를

■여수시청 8급 기능직의 75억원 횡령 수법



도용해 계좌를 만들고 농협에 찾아가 기존 계좌에서 변경됐다며 직접 신고해 이들의 급여를 모두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 금액이 무려 5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의 관련 계좌를 추적한 결과 100여 개가 넘고 일부는 사채업자와의 거래도 있는 등 돈거래가 복잡해 이를 규명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의 처가 등으로 자금 일부가 유입되는 등 은닉재산도 찾아내 환수가 가능하지 여부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정도라면 여수

시의 회계 시스템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공법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이한 사례라는 점에서 다른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는 29일 김씨의 기소를 앞두고 수사 상황 전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여수시는 그동안 정부 재무회계관리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던 세입·세출의 현금계좌와 관련 대책, 회계전문 감사팀 신설 등 재발방지책을 내놓았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24일 오전 광주시 북구 건국동주민자치센터에서 할머니와 함께 추수 후 남은 짚을 이용해 모자를 만드는 어린이의 표정이 천진하기만 하다. /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총인비리 녹취 지시 최경주 집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만 판사는 24일 총인저감시설 입찰비리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주(52) 전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최 전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불법녹취를 한 인터넷방송 전문가 김모(42)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불법녹취를 도와준 광주시청 공무원 박모(54)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6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건설업체 직원 정모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녹취록 내용 등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타인의 대화를 불법

법녹취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의 약점을 잡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피고인들의 불법녹취가 결과적으로 총인저감시설 입찰비리 사건을 드러나게 한 계기가 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20일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식당에서 총인저감시설 공사를 낙찰받은 대립산업 호남지사장 김모(57)씨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당시 광주시 서기관 반모(58)씨 등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취하도록 공무원 박씨와 김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만취 김여사님’ 차량 9대 추돌 뺨소니

순찰차 들이받고 검거

만취한 40대 여성 운전자가 신호대기중인 차량과 순찰차 등 9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경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김모(여·46)씨가 운전하던 쏘나타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김모(63)씨의 베르나 차량을 추돌했고 이 차량이

밀려면서 앞서 있던 트럭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출근중이던 베르나 운전자 김씨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회사에서 과음한 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김씨는 1차 추돌 이후 금호중 방향으로 도주하면서 갓길에 주차된 차량 7대를 연속으로 들이 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순찰차와 충돌하고

서야 멈췄다.

김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81%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치료중인 운전자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스마트폰 조종’ 여중생 성폭행범 영장 신청

광주서부경찰은 24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여중생을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4차례 성폭행하고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까지 찍도록 시킨 고등학교생 이모(16)군(광주일보

4월 23·24일자 6면 보도)에 대해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은 지난 8월29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의 한 상가

남자화장실에서 여중생 A(13)양을 성폭행하는 등 9월 중순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몸살 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고 강요하고 성폭행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대중목욕탕에서 30대 여성의 알몸 사진을 몰래 찍어 보내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나원침 (8675) 김중두



여수항만청 간부 아파트서 투신 숨져

24일 새벽 4시 50분경 여수시 여서동 모 아파트 화단에서 여수항만청 간부 A(55·서기관 4급)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유서 등은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투신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빈집털이 둔 흥청망청 쓰다 멸미

○빈집털이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이춘진(30)씨가 흥청망청 쓰다 멸미 기분을 내다 경찰에 털렸다.

○2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0)씨는 지난 8월 26일부터 최근까지 초인종을 눌러 빈집여부를 확인하는 수법으로, 광주지역 빈집 5곳에 몰래 들어가 금목걸이 등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할탈에 팔아넘겼다는 것.

○경찰은 무직인 김씨가 훔친 귀금속을 판매해 손에 쥔 돈으로 술을 마시거나 주변에 식사를 제공한다는 소문을 듣고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구속영장을 신청.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절반만 결제해도 여행가능

목돈없이 떠나는~ 내맘대로 여행. 2012상반기 베스트 히트상품

가슴 뛰는 삶의 여정에 동참하기 위해 후불제여행을 경험 해보자.

해외여행 1000만명 시대
목돈이 없어 여행을 망설이신다면
여기 후불제투어 여행적금을 적극 이용하세요.
가족단위, 산악회, 단체, 직장, 성지순례, 골프, 신혼
목돈없이 계획대로 여행갈수 있습니다.

■ 후불제투어 특징

- 후불제여행은 매월 일정 금액을 6개월 납입후 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잔금을 매월 일정금액 나머지 금액만큼 납부하는 획기적인 후불제여행 시스템입니다.
- 하나투어·모두투어 원하는 여행상품을 마음대로!
-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1인1구좌에 한함)
- 여행금액을 다 지불하고 가는 여행이 아니므로 최상의 고객만족을 실현시켜드립니다.
- 만기시 100% 환급가능합니다.

책임감 있는 진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NO!!

회원가입 월 회비 적립금 최대 360만원까지	월 회비 금액 40,000원 60,000원 120,000원	회비선택하신후 6개월 적립후 여행가능	상품 선택후 고객센터예약	적립금액+ 지원금액 목돈 없이 여행	여행후 잔금적립후 계약만료
--------------------------------	---	----------------------------	------------------	---------------------------	----------------------

신뢰의 1위기업 후불제여행사, 후불제 여행민의 신뢰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직접 경험 해보세요.

지사/영업직모집

■ 퇴직자, 주부사원, 알바, 재택근무
■ 지사모집 : 소자본 무경력, 여행사 운영가능합니다. (법인설립비용없음)

(주) 후불제투어 www.hubuljetour.co.kr
회원가입 및 상담문의 1577-5978

※ 고객의 회비는 공영위 할부거래법 적용으로 지정은행에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공영위 할부거래법 2010년 9월 18일 법 시행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비단택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